

‘해인사 사과’ 불자 반응

실상사와 해인사가 5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참회정진에 들어 가지 대다수 불자들이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승가는 화합중이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화합중이 이뤄진다. 실상사와 해인사의 참회는 승가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일하기에 깊이 환영한다.

‘참회로 마무리 역시 불제자답다’

‘해인성지 훼손 않는 계획 나오길’

‘잘못 자기에게 돌리는 용기 사표’

는 해인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환희 찬탄하는 바입니다. 금번 경사를 계기로 해인사의 큰 불사가 여법하게 계획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교단 내에 서로 다른 견해들을 화합시키는 바른 문화를 공수세워 견화동해(見和同解)의 화합중단의 초석이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해를 저해들은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해인사와 실상사 스님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불법의 지혜가 세상에 널리널리 전해져 갈수록 해소되고 화해의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해인사=문수성) ○맞습니다. 네댓넋 그렇듯 때가 아니지요. 서로를 인정하는 풍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과 번민하는 모든 이해 집단들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정보센터=한바우) ○원인과 과정이 어떨든 갈등을 빚었던 두 사중과 얽혀있던 분들이 참회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처님의 정법을 더욱 받들고 선양하는 그런 불제자와 중단이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또 중단의 사부대중이 좀 더 성숙해져서 모든 폭력이 사라지는 그런 중단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합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종도)

조계사 지역법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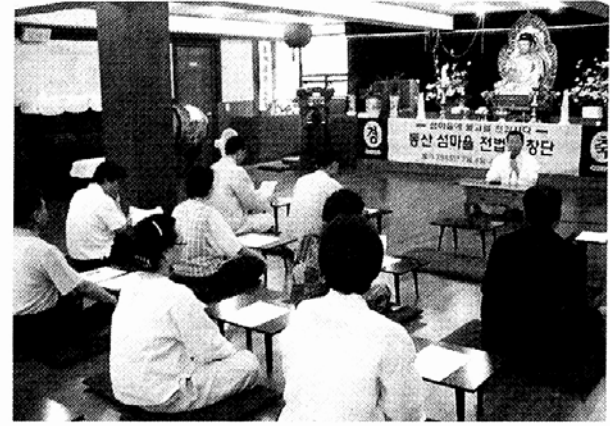
수도권 23지역 세분 ‘신도중심 사찰운영’

매일 1회이상 자체법회...복지시설 연계 봉사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지역법회를 창립, 불교 생활화와 지역불교 활성화에 의지를 나타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23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법회를 구성하고 7일 오후 대웅전에서 지역법회 임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문수법회'로 이름 지어진 조계사 지역법회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인천, 부천,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수원, 안산, 용인, 분당, 고양, 파주, 일산 등 수도권 지역이 망라돼 있다. 조계사 지역법회 창립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에서 불교 대중화와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과, 기존 사찰의 지역법회와는 달리 인천, 고양,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나서며, 3단계로는 재적사찰법회를 신도 중심의 사찰운영 기반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사 지역법회는 사찰에서 실시하는 불교기본교육 3개월 과정을 주요한 신도들의 기수별 모임을 지역법회로 전환한 것으로, 모두 1,8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각 사업별 계층별로 구성된 반야법회, 대학생회, 청년회 등과는 달리 법회 및 각종 신행활동이 자체적으로 이뤄지며, 지역 포교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도 지역법회가 갖는 특징이다. 조계사는 지역법회 활성화를 위해 3단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최소한 달에 한 번 자체법회를 갖도록 하면서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로는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되면 각 지역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나서며, 3단계로는 재적사찰법회를 신도 중심의 사찰운영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교

기본교육과정에서 3개월마다 배출되는 200여명의 신도와 기존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역법회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지역법회 신도 배가 운동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사는 또 지역법회를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신도 교육체계도 바로잡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3개월 기간의 불교기본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2년제의 교양대학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친 신도들을 고급단계인 경전 교육반으로 끌어올리고, 신도들 스스로가 해당지역에서 불교교육 및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현재는 2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구역을 세분화할 방침"이라며 "문수법회를 활성화시켜 신행은 물론 포교까지도 신도들이 담당하면서 사찰운영의 중심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마을 전법단’ 출범

동산반야회는 4일 오후 2시 동산반야회관 3층 법당에서 2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삼마을 전법단 출범식’을 가졌다. 삼마을 전법단은 담사, 전법, 후원팀 상시 운영해 장·단기 포교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마을 전법단은 영광군 낙월도, 응진군 영흥도 등을 오는 11월까지 섬 포교의 모델로 개발하고, 내년 12월까지 섬 지역 전역에 걸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소적새 마을 자원봉사 ‘발길’

지원자 350명 대기

교계 장애인 수용시설 소적새 마을이 자원봉사 도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승가원에 따르면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적새마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수는 350여 명. 이는 전국 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평균치 200여 명보다 70% 웃도는 수치다. 특히 자원봉사 신청자의 연령층이 중, 고교생뿐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점도 구별된다. 이에 대해 승가원 관계자는 "소적

종교편향 교육학교

안동지청 불기소 처분

영주불교계 ‘재항고’

종교편향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고발이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담당검사에게 의해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한 항고다. 다시 기각 처분되자 영주·봉화실천승가회 등 지역 불교계가 재항고했다. 대구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재항고장에 따르면, 해당 재단산하 6개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매주 2시간씩 예배와 성경교육을 실시했으며 심지어 모 여중은 졸업식을 교회에서 거행하고, 전교생을 매주 교회에 강제로 출석시켜 예배시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봉화 실천승가회는 이번에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헌법소원도 불사할 계획이다.

‘홍사용 기념관’ 개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불교회관 ‘제석’ 등 발표

일제시대에 발간된 계간지 <불교> 지에 '제석', '할미꽃' 등의 불교 회곡을 발표했고, 1928년 '출가', '흰젓'이란 불교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던 노작 홍사용. 그의 불심과 예심을 담은 '노작 기념관(사건)'이 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에 개관됐다. 기념관이 마련된 동탄면 석우리는 노작이 8세 때 이사에 후문의숙에 입학한 17세까지 살던 마을이며, 노작의 묘소와 사비가 있는 곳이다.



문예지 '백조'를 간행했고, 나라 잃은 망국민의 비애에 불교적 정서를 담은 시와 회곡을 선보인 노작의 기념관은 지난해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이끌었던 이원규(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씨가 '노작 홍사용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추진됐다. 노작의 생가 인근 한옥을 개보수해 마련한 100여 평 규모의 기념관은 방 1칸은 연구실로, 2칸은 집필공간으로 하고, 마당에는 소규모 무대를 꾸며 마당극 등을 공연한다. 오종욱 기자

교단 자정지원 등 내규 확정

재가연대 자정센터 9월 24일 발족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는 6월 30일 제2기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교단자정센터 운영내규를 제정,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교단내외의 해관계에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진실을 수호하며, 제보자와 자정활동에 있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8가지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는 20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최고 의결기

구, 운영위원회, 사무국 체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자정의 전화'에 의한 상담과 제보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제보자의 실명 및 연락처 확인 ▲6하원칙에 따른 사실 확인 ▲문서 또는 녹취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 등 자정사안에 충족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내규를 제정한 교단자정센터는 오는 9월 24일 공식 발족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14일 서산 부석사에서 'NGO 활동가를 위한 여름명상캠프'를 갖는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마음고인 禪房
불교방송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묵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음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야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동양인물상을 위한 특별한 기증-
누가 지니 마십시오.
진정한 음년수의는 유언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종류 변화정가격 불차정가격 특별혜택
상비 2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락스 보편형
상비 1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락스 보편형
상비 특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락스 보편형 상비형구 세트증정
수취 특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락스 보편형 상비형구 세트증정
만동록 7세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락스 보편형 상비형구 세트증정
*상비 특품이 포함된 10% 추가됩니다.
*오동나무는 양면과 시간에 정확히 매달려 드립니다.
株式会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랄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라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새겨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장,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적인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복과 재산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본문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